

전남 문화관광 정보 손 안에 쏘~옥

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방식 관광DB 구축 나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전남의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남지역 문화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유명 관광지 및 맛집 등 여행 정보와남도 역사 및 설화를 포함한 전남의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진흥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지원하

는 ‘공공·민간DB 오픈API 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개발자 및 콘텐츠 개발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해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맡겨 스마트폰 등 스마트 환경에 맞도록 전남의 관광DB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해당 기업들은 전남 22개 시군의 유명 관

광지와 숙박업소, 맛집은 물론 설화 등 애니메이션 정보가 담긴 ‘U-남도 여행길잡이’를 활용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 최대 규모의 통합DB가 오픈하게 돼 전남의 문화 관광 정보의 2차 콘텐츠가 생산됨으로써 전남도의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원은 또한 오는 11월까지 4억 원을 들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관광용 콘텐츠 6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스마트 콘텐츠는 유아용 음악교육 앱, 초등 수학 베스트 남아 교육 프로그램, 초등 과학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용 콘텐츠 3종과 담

양 슬로시티 관광 지원서비스, 남도 역사·설화 기반의 관광 앱, QR코드를 활용한 특산물 이력 관리 및 영상 홍보 시스템 등 관광 콘텐츠 3종이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자유 공모를 실시해 G사 등 6개 기업을 선정, 업체당 5000만원씩을 지원했다.

김영주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콘텐츠 시장이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가능한 스마트 기기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문화자원을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개발에 참여한 도내 기업들에게도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동육묘로 일손 덜어요”

강진군 성전면 도림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벼씨와 상토를 뿌려 모내기용 모판을 만들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마을 단위로 공동육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올해부터 권역별로 4번 열려

오는 31일 순천서 개최

전남도가 도내 기업과 구직여성들을 연계하고,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최해 온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올해는 4회로 나눠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목포·여수·순천 중 1곳에서 개최하던 것을

올해는 순천·목포·여수·장성 등 4개 시·군에서 운영한다.

도는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 중 여성채용 수요가 있는 업체들을 발굴, 구직여성들과 연계해 지난해까지 3590여명의 취업·창업 실적을 거뒀다.

특히 올해는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시기를 분산해 운영한다. 순천은 오는 31일, 목포는 9월6일,

여수는 10월31일, 장성은 11월7일 각각 개최된다. 오는 31일 순천 팔마실 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경우 채용관에 직접 구인기업 30개 업체와 간접 구인기업 150개 업체가 여성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순천박람회 참가 시·군은 순천과 곡성·구례·고흥·보성 5개 시·군이고 박람회장은 채용관과 창업관·진로탐색관·진로설계관·여성친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통해 여성들이 성취유형에 맞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얻고 취·창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도농 상생발전 협동모델 만들자”

광주 인근 나주·담양·화순·장성 4개 시·군 공동발전 협약

나주시와 담양 및 화순, 장성 등 광주광역시 근교 4개 지자체가 공동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임성훈 나주시장과 김양수 장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홍이식 화순군수 등 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22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4개 시·군 공동발전 협약식’을 갖고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사진>

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권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주시 근교의 지자체들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장들은 협약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친환경 농·축·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관광 축제 등에 대해 공동 홍보활동을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



을 다짐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환영인사에서 “광주광역시라는 거대시장을 곁에 둔 4개 지자체는 도농상생의 필요성과 가능성, 실천방안을 고민해서 각각의 실정에 맞는 협동모델을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는 물론 그린벨트 해제 등의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이식 화순군수는 “영산강과 혁신도시, 무등산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화순군은 단체장들의 모임에서 논의된 안건을 우선 추진하는 등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4개 시·군 단체장들은 그동안 교통망 구성과 농촌관광, 미래생태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전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향후 운영규약을 마련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g@

광주 금부초·전남 문수초·쌍봉초

도시학생 농어촌 체험 ‘팜스쿨’ 선정

광주·전남 3개 초등학교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팜(farm) 스쿨’에 선정됐다.

‘팜 스쿨’은 도심지 초등학교들의 농·어촌 이해도 증진과 초등학교-체험마을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광주·전남 3개교 등 전국 30개 초등학교를 ‘팜스쿨’로 선정했다.

광주·전남 ‘팜스쿨’에 선정된 학교

는 광주 금부초등학교와 전남 문수초등학교, 쌍봉 초등학교로 담양 도래수 마을과 광양 도선국사마을, 곡성 가점마을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팜스쿨’은 마을 인근 농·어촌경관과 전통문화 자원·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연계한 토요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촌 가치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농·어촌의 발전

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특히 농작물 생태 및 재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감 있고 수준 높은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험마을 소재 시·군의 농촌지도사가 대상 학교의 체험학습 진행을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팜스쿨 사업이 농·어촌의 따뜻한 정서와 가치 이해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차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전한 농·수산물 소비자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고추 계약재배 늘려 전량수매

농협전남본부 수급안정협의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올해 생산된 고추에 대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약정한 물량의 전량수매와 상품질 제고를 위해 포전에 대한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지역본부에서 관내 22개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 수급 안정사업 활성

화를 위한 ‘고추 전남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계약재배사업 추진 물량을 전년보다 33% 증가한 1200t으로 확대하고, 출하조절을 실시해 가격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계약재배사업으로 약정한 물량의 전량수매를 위해 포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지교육과 소비촉진 홍보 등도 펼치기로 했다.

박준화 협의회장은 “고추 계약재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에 주력하는 등 고추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제20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The 20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Naju 2012

2012. 5. 31(목) - 6. 1(금)

| 대회장소 | 나주다목적체육관 외 종목별 경기장

| 개 회 식 | 2012. 5. 31(목) 11:00 나주다목적체육관

| 폐 회 식 | 2012. 6. 1(금) 16:00 나주다목적체육관

| 주 최 | JNSAD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 관 | 나주시, 가맹경기단체